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16(금) ~ 2023.06.22(목)

제공일시 2023 06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16(금) ~ 2023.06.22(목)

제공일시 2023 06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이사회, 생물다양성 관련 자연복원법 합의

- EU 이사회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지역의 최소 20%,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지역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자연복원 조치를 수립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법안은 습지, 수풀, 숲, 강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의 서식지 보호와 관련된 생물다양성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운영을 '우선적인 공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연복원법에 의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음
- 그러나 아직 EU 의회가 최종 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네덜란드를 포함한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ESGToday, 2023.06.20\) Mark Segal 기자](#)

2. 스위스,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로 기후법 승인

- 스위스 유권자들이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금 도입, 또 2050 넷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법 도입을 승인했음
- 2021년 스위스는 기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59%의 지지를 받아 통과했음
- 당시 기후법을 도입할 경우 에너지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반대논리가 강했는데, 올해 몇 주 동안 수많은 논쟁을 통해 여론이 뒤집혔음
-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유럽 소비자들의 민심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임

[\(Reuters, 2023.06.19\) Noele Illien](#)

3.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항공기 탈탄소화에 연간 3억유로 투입

- 프랑스가 항공기 탈탄소 목표 기술과 저탄소 연료에 2030년까지 연간 3억유로(약 4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 또 프랑스는 연간 50만톤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음
- 또 프랑스는 전기 및 수소 동력 항공기 개발 지원, 바이오 정제소 투자 등에도 각각 2억 유로 (약 2800억원)씩 투자를 밝혔음
- 프랑스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5시간 내 철도로 운항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한 바 있음

[\(ESGToday, 2023.06.19\) Mark Segal](#)

1. 환경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음
-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음
-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임

(부산일보, 2023.06.20) 황상욱 기자

(이투데이, 2023.06.20) 노승길 기자

2. 정부, 철강 등 9대 산업 순환경제 활성화...탄소중립·공급망 확보 기대

- 정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대체 연·원료 확보 등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 9 프로젝트)도 함께 담겼음
- 이번 전략을 통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며, 정부는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음
-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가 의무화되고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 활성화, 신시장 창출도 지원할 예정임

(뉴스핌, 2023.06.21) 이태성 기자

(비즈팩트, 2023.06.21) 최지혜 기자

3. 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원 투자...“유니콘 10개 육성”

- 정부가 탄소 감축과 경제적 성과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 정부는 민간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145조원을 투자해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수출 규모 100조원을 달성하여 기후테크 분야 신규 일자리도 1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음
-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와 초격차 펀드를 신설, 4000억원이 넘는 정책펀드를 조성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임
- 또, 정부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과 R&D 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와 산단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했음

(조선비즈, 2023.06.22) 전준범 기자

1. 바스프, 전 제품 포트폴리오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개선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자사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인 'TripleS (Sustainable Solution Steering: 지속가능 솔루션 관리 시스템)'를 업데이트했음
- 바스프는 올해 말까지 가능한 많은 제품을 재평가하여, 새로운 핵심성과지표(KPI)인 '지속가능한 미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 이 새로운 지표는 바스프의 전체 제품 중 파ioni어(Pioneer) 및 컨트리뷰터(Contributor) 제품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24년에 발표될 예정임
- 바스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늦어도 5년 안에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계획이며, TripleS를 전 세계 시장의 바스프 전 제품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방침임

(농기자재신문, 2023.06.16) 심진아 기자

2. 워터리스크 기업 댄진다, 블룸버그 "기후변화는 상어, 워터리스크는 이빨"

- 기후변화가 수자원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물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워터리스크'를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터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3920억달러(약 506조6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블룸버그는 주류와 같이 제품에 물을 직접 사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의류와 의약품 생산기업, 빅테크 기업 또한 물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에 더해 워터리스크를 줄이려면 투자자가 기업에 더 자세한 수자원 사용 정보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제시됐음

(비즈니스포스트, 2023.06.21) 이근호 기자

3. BCG, 사상 최대 규모 DAC 탄소 제거 계약 체결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DAC 회사인 카본 캡처와 5년에 걸쳐 4만톤의 이산화탄소 제거 크레딧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DAC 거래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전 세계 프로페셔널 서비스 업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임
- 카본캡처는 2022년 9월 탄소저장장치 개발업체인 프론티어 카본솔루션즈와 손잡고 이산화탄소 500만톤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 탄소를 포획 및 저장장하며, 협약에는 BCG가 카본캡처의 사업을 전략 컨설팅하는 서비스 제공도 포함돼있음

(ESGToday, 2023.06.21) Mark Segal 기자

1. LG화학, 10분내 ‘탄소발자국’ 측정

-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탄소 발자국 시스템(CAMP)’을 통해 제품별로 공정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10분 내 산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한국경제, 2023.06.18\) 김형규 기자](#)
- LG화학은 최근 CAMP를 적용해 전남 여수공장에서 생산하는 고흡수성수지(SAP)의 탄소 발자국을 자동으로 측정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CAMP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을 공개했음
- 또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탄소 통합관리 시스템(넷제로 관리 시스템)’도 사업부별로 적용하기 시작했음
- 이는 CAMP와 별도로 제품 생산에 소모된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원 종류(액화천연가스·스팀·전력 등) 등 탄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임

2.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해외 최대 규모 그린수소 개발 확보

- 삼성엔지니어링이 포함된 3개국 6개사 컨소시엄이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최대 규모의 '오만 그린 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음 [\(아시아투데이, 2023.06.22\) 이철현 기자](#)
[\(중소기업신문, 2023.06.22\) 김민준 기자](#)
[\(한국경제, 2023.06.22\) 김형규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입찰에 포스코홀딩스,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프랑스 엔지, 태국 PTTEP와 글로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최종 사업자에 선정됐음
- 컨소시엄이 확보한 부지 면적은 서울 총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40km²로, 인근에 두릅 경제특구 내 도로, 항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은 해당 부지에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연 22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는 해상 운송 용이성 등을 고려, 두릅 경제특구에 건설할 계획임

3. 한전, ‘전력정보 에너지맵’ 구축…전력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

- 한전이 전력정보 에너지맵을 구축하고 누구나 사용하도록 공개했음
-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등 전력분야에 특화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전력사용량 맵, 재생에너지 맵, 전력 녹색맵, 전력 탄소맵 등 4개 서비스로 나뉘었음 [\(전자신문, 2023.06.22\) 변상근 기자](#)
- 사용자는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활용도, 전력사용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에 대한 전국 분포와 지역별 밀도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맵은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전은 지역·이웃별 전력사용량을 시각정보로 제공하고 에너지캐시백 등 참여정보도 공개함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6.16(금) ~ 2023.06.22(목)

제공일시 2023 06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구테흐스, 머스크, 재닛옐런의 발언...ESG 관련 산업&무역 갈등 고조

- ESG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과 무역장벽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각 섹터를 대변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 기업에 로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ESG는 악마"라고 비판했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각) 기후운동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석유 석탄 가스의 단계적인 퇴출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저해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발언했음
- 로이터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아니라 화석연료 그 자체"라며 "석유 석탄 가스를 채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했음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 회사들은 영향력 행사를 중단하고 법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반독점법을 발동하며 넷제로 동맹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는 '넷제로 보험연합(NAIA)'이 최근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법적 우려 때문에 8개 창립 회원사 중 5개를 포함, 총 7개사가 탈퇴한 것을 언급한 것임
-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신뢰할 수 없는 상쇄 크레딧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ESG는 악마"이며 "나쁜 행동을 숨기기 위한 도덕적 망토로 악용되고 있다"며 또다시 ESG를 비난했음
- 머스크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미디어 '워싱턴 프리비콘(The Washington Free Beacon)'의 애런 시바리움(Aaron Sibarium) 기사가 쓴 담배 회사들의 ESG 평가등급이 테슬라보다 높다는 기사에 이같이 반응했음
- 테슬라가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7점을 받았지만, 말보로 담배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는 84점이나 받았음. 기사는 또 런던증권거래소(LSE)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ESG 점수도 94점이지만 테슬라는 65점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음
-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5월 테슬라가 S&P의 ESG 지수에서 탈락했을 당시에도 벌어진 바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비판하며 "ESG는 사기"라고 하자 S&P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음
- S&P는 "테슬라는 동종업체들의 하위 25%군으로 떨어져, 낮은 ESG스코어 때문에 지수 편입자격에서 탈락했다"며 테슬라가 ESG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에 탈락했다고 밝혔음

(임팩트유, 2023.06.19) 홍명표 기자

-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해 공급망을 실사하도록 강요하는 EU의 노력이 갖고올 잠재적인 '부정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EU의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는 EU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의 '영토 외 범위'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